

투데이 칼럼

우환(憂患)을 이기는 말

인생의 여정에서 평온한 생활 무탈한 생활을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 본다.

그러나 인생살이 중에 피할 수 없는 것 중에서 만나는 것이 우환이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근심과 고통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우환이라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생명을 부여할 때 덤으로 신이 준 것이 아닐까 싶다.

부귀한자는 부귀한자로서의 우환을 만나고 빈천한자는 빈천한자로서의 우환을 만나니 맹자는 인생에서 만나는 우환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말했다.

첫째, (苦)고풍이다. 마음(心)과 뜻(志)을 고풍스럽게(苦)하는 정신적인 우환이다.

고풍의 우환은 돈과 지위를 모두 가진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우환이다.

고통의 발생은 다양하지만 바라던 기대와 다른 결과에 실망하여 올 수 있다.

관계의 파탄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어느 날 허무함과 고독감을 느끼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둘째, 노풍(勞)이다. 뼈를 수고롭게(勞)하는 육체적 우환이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만나는 우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환을 말하는 것이다.

성공하였지만 노풍을 만나면 한 순간에 무너지기도 한다.

육체가 건강관리에 소홀하여 오기도 하고 육체가 보내는 이상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인 여러 가지이다.

그러므로, 육식 너무 부리지 말고 평심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아가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보자.

셋째, (戩)아풍이다. 몸과 피부를 굶주리게(戩)하는 재정적 우환으로 인생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견디 내기 힘든 우환이다.

사람을 잘 못 만나 가진 돈을 모두 날리기도 하고 잘못된 투자로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맹자는 인생에서 만나는 우환을

가 인들리는 우환으로 악성이 되었고, 헬렌켈러는 3층고의 장애인이라 되어 세계적인 사회사업가, 교육자, 작가가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모범적으로 발전시켰고, 재정위기를 잘 견뎌내서 세계 10대 대국의 대열에 들 어설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우환이 있을 때 예방할 때 어떠한 말로 나를 다스려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을 98%정도 지배하는 힘을 갖고 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자신과의 대화)에 달려있다.

오늘날 개인의 우환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우리나라도 우 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길거리 흥기난동, 교권침해, 양당의 극과극의 정치, 북한의 군사적 긴장, 불확실한 세계 경제 등이 있지만, 지난 3년의 코로나19 극복에 온 세계인들이 단합하여 극복한 사례가 있듯이, 각자가 '긍정의 말, 희망의 말, 단합의 말 격려와 칭찬의 말'로 살아간다면.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실용화론이며 필수인 스피치학으로 '말'의 능력을 믿고 기쁨을 터득 하여 우리가 겪는 어떠한 우환도 이겨내서 발전과 성공의 디딤돌로 삼고 살아보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캐나다 산불 피해 주택 살피는 지역 주민



20일(현지시각)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스코치 크리크에서 한 주민이 산불로 파괴된 주택 잔해를 살펴보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산불 진화를 위해 군대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힘차게(?) 출발하는 티라노사우루스 달리기 참가자



20일(현지시각) 미 워싱턴주 오번의 한 경마장에서 '티렉스 월드 챔피언십' 대회가 열려 티라노사우루스 복장을 한 참가자들이 출발하고 있다. 이 대회는 2019년 경마장 측이 일회성 행사로 진행했으나 영상과 사진들이 온라인을 통해 화제를 불러일으키자 연례행사로 바뀌었다.

사설

달라지는 복달임 풍속도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는 지난 7월 초복을 맞아 와이식자 재마트 중화산점 등에서 후원한 간편조리식 삼계탕을 경로당 10개소에 전달했다. 이처럼 기업과 단체가 대면 행사 제한이 완전히 풀린 올해에도 가정간편식을 활용해 복달임 행사를 진행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어르신들을 위한 복달임 행사를 후원하는 기업들과 봉사단체는 직접 닭을 삼아 삼계탕을 끓여 대접했다. 그러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간편 포장해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2021년부터 가정간편식 삼계탕이 늘어나자 본격적으로 이를 구매해 전달하는 방식이 등장한 것이다. 2023년부터는 대면행사에 대한 제한이 풀렸다. 그런데도 기업과 단체들이 가정간편식을 전달하고 있다.

직접 끓여서 제공하는 경우 당일 전부 소진해야 하고 봉사자들의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

다. 또 코로나 감염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 어르신들을 모아 대규모로 진행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른다.

반면 밀키트를 전달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사라진다. 삼계탕 밀키트의 인기는 일반 가정에서도 커지고 있다. 2만원에 육박하는 돈을 내고 삼계탕을 먹을 바에 집에서 저렴하게 몸보양에 나서겠다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삼계탕 한 그릇(1kg)의 평균 가격은 1만6423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 올랐다. 반면 간편식 삼계탕은 봉지당 7000원~1만 원 정도다. 점자레인지에 대워서 간편히 먹을 수 있다.

외식비 부담에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삼계탕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보양식 밀키트를 준비하는 것은 널리 권장할 일이다. 앞으로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바란다.

한중 국제여객선 승객 운송 재개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이 허용된 데 이어서 한중 국제여객선도 승객 운송을 재개했다. 3년 7개월 만이다. 벌써 중국에서 출발하는 수십 척의 크루즈선들이 제주 방문을 예약했다.

최근 중국 칭다오항에서 중국인 118명을 태운 국제여객선이 인천항에 들어왔다. 15시간의 긴 항해 시간에도 입국장으로 나온 중국 관광객들은 밝은 표정이었다. 80여 명의 단체 관광객들은 여행사 깃발을 따라 발길을 옮겼다.

어느 중국인 관광객은 가족 등 모두 7명과 함께 왔다. 예뻐 보이고 면세점에 갈 예정이라고 했다. 평택항에도 중국 웨이하이에서 출발한 국제여객선을 타고 중국인 50여 명이 도착했다.

코로나 사태로 화물만 운송 중이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이 재개된 것은 지난 2020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도 전면 허용한 만큼 여객선을 이용해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커'는 늘어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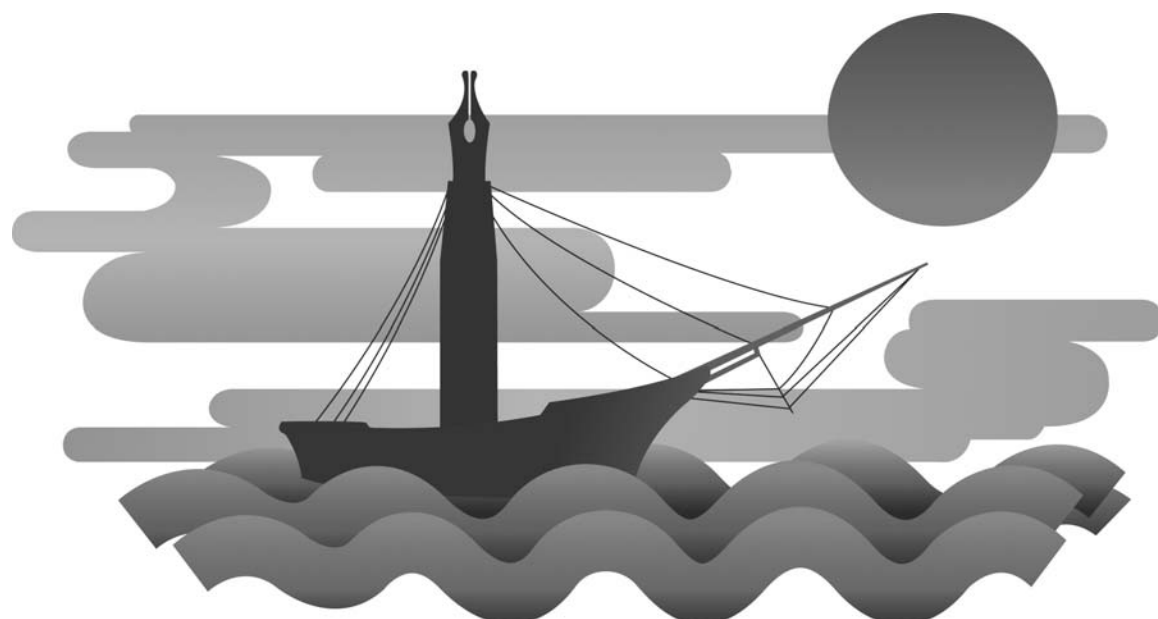
이미 중국발 크루즈선 53척도 제주 방문을 예약했다. 배는 항공보다는 좀 저렴한 상태로 여행을 할 수 있다. 한 번에 800명 이상의 관광객이 들어온 적도 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구입해 판매하는 중국인 보따리상, 일명 '파이공'들의 입국도 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상인들은 코로나 사태 전에 왔었고 3년 동안 못 오다가 이번에 처음 온 사람들이 많다.

중국 특수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중국 명절 중추절과 국경절이 맞물린 황금연휴까지 앞두고 있어, 관광과 유통업계는 중국인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백화점과 면세점은 중국어가 능 직원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고, 제주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는 직원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